

CHINA **KOREAN**
흑룡강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대형시리즈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

이진산 주필



대장정 300일이 낳은 흑룡강신문사의 대형시리즈에서
재중 한국인과 중국조선족이 한몸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시아기자협회 회장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상기

흑룡강신문사 출판사

KOREAN
CHINA 북룡강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대형시리즈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



북룡강신문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国朝鲜族现状/李振山主编.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 8

ISBN 7-5389-1332-7

I. 中... II. 李... III. 报告文学—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083519 号

书 名/ 中国朝鲜族现状

主 编/ 李振山

责任编辑/ 金斗弼

责任校对/ 金 宇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哈尔滨市工大节能印刷厂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28.75

字 数/ 360 千字

版 次/ 2006 年 8 月第 1 版

印 次/ 2006 年 8 月第 1 次印刷

印 数/ 1-4 000 册

书 号/ ISBN 7-5389-1332-7/G·345(民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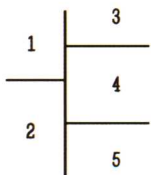
定 价/ 56.5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 1 이곳이 광동 맞아?
겨레의 새로운 살터에서 가장 쉽게 많이 모이고 다양한 행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노인협회이다. 활기로 넘치는 심천 조선족 노인협회.
- 2 이곳에도 한글간판
광동성의 심천, 광주, 동관, 해주 등지에서 거리를 걷노라면 심한 광동사투리 속에서 가끔 "우리말"이 들리고 "우리 글" 간판이 보인다. 광주 원경로 코리아타운 내 자리잡은 대장금 한식점.
- 3 심천대학 한국 유학생들
심천대학에서 유학 중인 한국 유학생들이 교내 체육대회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4 특별취재팀
우리글언론중 사상 처음으로 전국 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행되고 있는 이번 특별취재코스의 첫 도착지는 광동성, 특별취재팀 일부팀원들이 함께 한 기념사진.
- 5 어우! 끔찍해!
해남을 찾은 한 한국인 관광객이 소수민족 풍속공연을 하는 현지 원주민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1	
2	
3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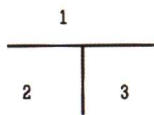
- 1 상하이 동방명주탑
- 2 상하이 부동산에도 한국인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 기업, 한국인을 위한 부동산세미나가 지난 8월에 열렸다.
- 3 타국에서 우리는 명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한국인 송년의 밤.
- 4 상하이 쇼핑문화를 선도하는 이마트.
- 5 롱바이에 조선족상가 들어섰다. 20개 찐지판매대 집중으로 롱바이코리아타운의 진풍경을 더했다.



- 1 중한 친선을 위한 식수
재중국 한국인회는 베이징 평타이구 삼림공원에서 한중 우의를 가꾸기 위한 식목행사를 했다. 여기엔 일부 조선족들도 참여했다.
- 2 한국 열린 우리당 문희상 의장 방중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면담을 마친 문희상 한국 열린우리당 의장 일행이 베이징 왕징에 있는 재중국한국인회(회장 백금식)를 찾아 재중 한겨레와 환담을 한 뒤 기념사진을 남겼다.
- 3 베이징의 평양 옥류관
냉면과 온반으로 유명한 베이징에 있는 평양옥류관 제1분점. 음식 맛뿐만 아니라 저녁이면 복무원들의 공연으로 더 유명하다.

2 | 3
1





- 1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
베이징 조선족의 가장 대표적인 송구영신 행사는 베이징시 민정국의 인가하에 민족출판사 조문부, 중앙번역국 조문부,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부, 중국 국제방송조선어부, 민족단결잡지사 조문부 등 조선족 기관들이 공동주최하는 춘절맞이 행사이다. 지난 설맞이 행사에서 배우들이 관중들에게 설날 세배를 올리고 있다.
- 2 꽃피는 우리 음식문화
베이징 코리타운 왕징 음식거리에 한식점들이 들어서 우리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 3 조선족 최대 기업 창녕
민족의 자랑인 조선족 최대의 기업 창녕은 석산리씨가 이끄는 기업으로 대형 펄프가공과 관련 주물 가공사업 및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징 서4환도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창녕빌딩>, 23층 높이에 연건평은 3만여평방미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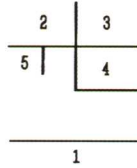
2	
3	4
1	

- 1 한국을 알리자
청다오 한국주간 행사의 하나인 문예활동에서 한국모델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 2 산동지역의 유일한 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국제학교는 연대개발구 내 대우중공업 등 대기업투자에 힘입어 현재 380명의 재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박찬홍(뒷줄 오른쪽 네번째)교장을 비롯한 교사들.
- 3 역사가 유구한 중한 상거래
지난 5월 문을 연 장보고 유적지. 위해시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한 국인이 즐겨찾는 곳. 장보고가 당에 머물던 시절 신라와 당나라 간에 물물교역이 이루어지던 곳이라 한다. 유적지 내의 안내문에는 한 글이 병기돼 있다.
- 4 줄지은 한식점
연대시 주강로에 위치한 한국음식거리, 이곳에 최근 2년동안 20여 개의 한식점들이 입주하여 우리의 음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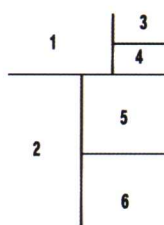


- | | | |
|---|---|---|
| 1 | 1 | 심양 코리아타운-서탑거리 |
| 2 | 5 | 2 조선족 집중촌 상징
심양시 동룡구 만용촌 입구에 세운 조각상. 조각 뒤로 아파트들이 아담하게 들어섰다. 조선족촌들이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조선족 집중촌을 현대적으로 탈바꿈시켜 동북3성과 내몽골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 |
| 3 | 3 | 3 새로 건설된 압록강철교
최근 단동시는 조선과의 경제교류 강화를 위해 조선과 중국을 잇는 차량 전용압록강대교를 건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쟁 때 끊어진 압록강 철교로 이 철교옆에 새로운 철교가 건설돼 현재 사용되고 있다. |
| 4 | 4 | 4 동북지역 관문 대련항
동북지역의 관문인 대련항의 모습. 수출입 화물을 싣고 나르는 각종 크레인과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늘어서 있다. |
| 4 | 5 | 5 한겨레 발전 고민
대련지역 각 분야 동포유지들이 본사 특별취재팀과 함께 한겨레 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 1 민족인재의 요람-연변대학
- 2 국내 유일 우리글 서점
우리 말과 글이 잊혀지지 않도록 독자들이 우리글로 된 책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연길 신화서점.
- 3 서시장 명태매장
연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서시장은 우리 전통 먹거리 시장이기도 하다.
- 4 5 윤동주 생가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민족의 유명한 저항 시인 윤동주의 생가를 찾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1 윤남한국국제학교에서는 '꿈나무' 들에 한민족의 전통예절을 전수, 민족의 전통을 고양시키고 있다.
- 2 곤명시 세계원예박람원.
- 3 봄의 도시 곤명에서도 새싹들에 우리말과 글을 고양하는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 4 '장안' 에도 조선전통음식문화가 뿌리 내렸다.
- 5 중경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 6 유서 깊은 옛 도시-서안의 종루.



흑룡강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임 부주석 중국인민해방군 상장

조남기

우선 민족사업의 창달을 위해 큰 몫을 감당하고 있는 흑룡강신문사 창사 50주년에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흑룡강신문’은 비록 산재지구에 있지만 항상 겨레의 삶의 현장을 뛰고 겨레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족사업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하여왔다. 이번에도 〈중국한겨레 사회 어디까지 왔나?〉라는 전반 조선족사회와 재중 한국인 사회를 진맥하는 거대한 공정을 벌려 그 성과가 신문에 이어 오늘 책으로 펴내기에 이르렀다. 재삼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중국 56개 민족중의 의젓한 소수민족언론지로서 언제 어디서나 당의 민족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고 겨레와 더불어 중화민족이란 이 대가정의 부흥을 위해 보다 많은 사업을 하기 바란다.

책의 출간을 축하하며 흑룡강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趙南基

2006년 5월 18일



흑룡강신문 창간 50주년 축하

주중국대한민국대사 김 하 중

중국내 조선족 사회의 구심체로서 조선족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흑룡강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선족 사회는 지난 92년 한중 수교이후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한중 관계 발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92년 한중 수교 당시 50억불에 불과하던 양국간 교역액은 작년 1,10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작년말 한국의 대중 투자액이 누계 약 310억 불에 달하는 가운데, 3만 여개의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간 매주 420편의 직항편 등을 통해 지난해 430만여명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양국관계발전의 배경아래, 지난해 11월 胡錦濤 주석의 방한시에는 양국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2012년 교역액 2,000억불 달성, IT, 미래첨단기술, 자동차, 철강 등 17개 중점 협력분야 설정 등, 한중 양국관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 과정에서 조선족 사회의 기여와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족 사회의 발전과 한중 양국관계 심화, 발전을 위해 흑룡강신문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다하여 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흑룡강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하면서, 흑룡강신문 직원 및 독자 여러분과 조선족 사회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년 5월 20일

머리말

흑룡강신문사 사장/총편집 이진산



겨레가 있어 생존하고 겨레를 위해 신문을 펴내는 민족의 언론사라면 시대를 기록하고 시대의 증인이 되어 신속히 새로운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고 겨레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겨레사회의 변화와 현황을 제때에 정확히 판단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바른 길로, 빠른 길로 부를 쌓도록 수시로 언론으로 제시하고 호소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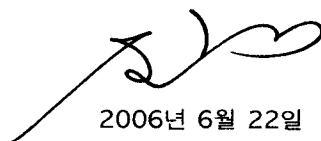
세월과 더불어 오늘 중국 한겨레사회의 구도는 지난 세기와는 판이한 새로운 형태와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멀리 한 세기를 거슬러 조선반도에서 밭짐을 메고 두만강을 건너온 조선족의 이민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물길이 있는 너른 땅을 찾아 벼농사를 지으러 온 근로한 농민들과 독립투사들이었는데 독립투사의 경우도 근거지는 우리의 농촌마을이었다. 그러한 민족의 생존터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해방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개혁과 개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지난 세기 80년대 말까지도 중국 조선족의 다수 인구는 동북 3성과 내몽골에 널려 있는 조선족향촌에서 살았고 그래서 한때 ‘벼농사’는 조선족의 대명사로 되기도 했었다. 하던 것이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 10여 년 사이 조선족 농촌인구와 노력은 해외노무에 이어 중국의 연해지역과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며 새롭게 도시인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 기업인들의 중국진출도 붐을 이루어 연해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전역에 한류가 흘러들었고 현재 그 인수는 무려 50만을 헤아리고 있었다. 이리하여 지금 동북 3성과 내몽골 지역 조선족농촌의 인구는 줄어 들고 있지만 중국에 사는 한겨레의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날 중국의 조선족인구를 200만으로 보았다면 현재 중국에 사는 한겨레의 인구는 약 230만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것도 특정된 지역이 아니라 광활한 중국의 방방곡곡에 조선족과 한국인이 현지인들 속에서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다면 현재 어느 성(직할시, 자치구) 어느 도시에 조선족과 한국인이 얼마나 살고있고 그들은 현지에서 어떻게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기회와 도전, 성공과 교훈으로 얼룩진 현실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흑룡강신문사의 사훈대로 '민족의 이익을 수호하고 민족의 진흥에 기여하자' 면 변화된 현실에 입각하여 전반 중국 한겨레사회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파악과 점검이 관건적인 기초작업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흑룡강신문사 창사 50돐을 앞두고 마음먹고 접어든 일들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 전역을 돌며 '한겨레 사회 어디까지 왔나?' 물음에 대답을 찾는 대형시리즈보도를 펴내는 일이었다. 이 행사는 지난해 8월초부터 금년 5월말까지 10개월이란 긴 시일이 걸렸고 신문사의 부총편집들이 직접 취재팀 팀장을 맡고 앞장서 뛰고 편집부의 중견기자들이 육속 취재 길에 나섰으며 전국 한겨레사회를 대상해 펴내는 본사 주간본부를 주축으로 일간지에 인터넷신문편집들, 그리고 심천, 상하이, 청도, 베이징, 천진, 심양, 대련, 연길, 장춘 등 각지에 있는 지사와 특파원들까지도 전부 동원되었다. 한편 고마운 일은 여러 성시의 민족사무위원회, 주중 한국영사관, 각지 한인상회, 조선족기업가협회, 조선족친목회 그리고 수많은 유지인사들이 뜨겁게 협조의 손길을 보냈었다. 하여 중국의 대만과 서장, 귀주 등 한겨레가 희소한 몇개 성(자치구)을 제외하고는 비행기로, 열차로, 취재차로 전국 각지를 살살이 누비면서 도합 240여 편(80여개 지면)에 달하는 묵직한 계열보도와 400여 폭에 달하는 생동한 사진을 보내왔고 그런 기사와 사진을 일간지(동북 3성 상대), 주간지(전국 한겨레사회 상대), 인터넷흑룡강신문(지구촌 한겨레를 상대)에 동시에 육속 발표하였다.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 물론 미흡한 점들도 많지만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또 하기가 어려운 일을 엄청난 경비를 쓰며 땀과 술기로 마침내 해냈다는 긍지 감에 신문사의 가족성원들은 한사람처럼 감개가 무량해지는 기분이다.

이 책은 여러면의 편리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한글표기법을 사용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 질문에 이어 오늘날 이 한 답장을 책자에 담아 흑룡강신문사 창사 50돐 헌례로 여러분께 드린다.



2006년 6월 22일

차례

제1편 광동편

민족의 내일을 보여주는 광동 한겨레 사회	3
광동은 기회의 땅 보람의 장	13
사라진 고향마을 심천서 부활	17
광동지역 모바일 부품 선두주자	19
조선족젊은이들의 심천행 열어준다	21
고객 부응 물류 서비스개발이 관건	23

제2편 해남편

천애지각에 겨레의 숨결 드높다	29
해남 부동산 내륙 달군다	35
해남도서 꿈을 키워 가는 한국인 농장주	38

제3편 상하이편

기회와 도전 희망으로 엮어가는 멜로디	43
지금의 중국 내수시장 선점할 절호의 기회	52
제2회 중국 투자기업 경영실태	55
의오를 바꾸는 한겨레 상인들	57
우리 민족사회 우리가 만든다	61
한국 자본 강소성 외자분야 다크호스로	64
신뢰와 믿음으로 성공신화 이룬다	67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풍성한 문화활동 공간 장식	70

제4편 산동편

성숙되는 중국 제2의 한겨레 사회	77
청도 한겨레의 보다 나은 미래 위해 고민	92
한국어인재 시장수요 조준	96
살기 좋은 위해, 기회도 많아요	98
한국기업 현지투자 뭘 주의해야 하나?	102
청도, 한국 문화교류 봇물	106
'문화콘텐츠사업으로 민족의 얼 지켜요!'	109

제5편 수도권편

급성장하는 수도권 한겨레 사회	115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늪지'가 될 수도	127
민족인재 양성의 요람- 중앙민족대학 조문학부	131
IT로 중한 상무교류에 지름길 편다	134
빈하이신구 개발로 경-진 일일생활권	136
'천진 한국인 자녀교육 우리한테 맡기세요'	141
베이징 한겨레 부동산 현황과 전망	143
한류(韓流)와 한풍(漢風)의 합류를 바라며	150

제6편 요녕편

기회와 희망으로 점철된 요녕 한겨레 사회	159
영사관 호감 가는 공관으로	171
요녕성에 다시 부는 한국바람	176
"조선족 어려움 헤아려 고마워요"	182
심양시조선족기업가협회- 민족사회 대들보	184
중한 문화교류 가교 역할	187

제7편 연변편

두만강 기슭에 '전설'은 살아있다	191
--------------------------	-----

2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